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각하

삼가 아뢰옵니다. 더위가 한창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더욱 더 번영하시니 경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은 귀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은 「한국4대강사업의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므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 드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에 대해서 일본 국내의 개인과 단체부터 찬동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접수된 찬동자의 명단을 첨부했으므로, 아울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명서 찬동자에 관해서는 8월말 무렵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제차 보내 드릴 생각입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가 말씀 드립니다.

보건에 대한 연락처

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

〒113-0021 東京都文京区本駒込4-38-1 富士ビル2F

FAX : + 81-3-5842-1882

担当 菅波 完(수게나미 타모즈) sugenami@nifty.com

Tel + 81-7-5074-5985

한국 4 대강 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
대표이사 카시와기 미노루
동 쿠레치 마사유키
동 하나와 신이치
동 호리 료이치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은 한국의 이명박 정권에 4 대강개발사업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 환경보호단체와 지역주민과의 대담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의 갯벌과 습지 보전에 힘써온 풀뿌리 그룹의 네트워크다. 근 15 년 간 한국과 일본의 NGO 간 교류를 깊이 하여 양국간의 활동을 활발화 시켜왔다.

특히 2008 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 10 차 당사국총회 (Ramsar COP10) 는 습지 보전에 관하여 세계의 NGO 들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Ramsar COP10 의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 대강개발사업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 개의 하천에 20 개 이상의 댐 건설과 토사준설의 총 양을 5.7 억 평방 미터에 달하는 대단히 대규모의 사업이다. 한국정부는 이 사업에 의하여 생태계에 일어나는 피해를 부정하고 있으나 4 대상개발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철새의 도래지를 감소 시키며, 하천유역의 희소한 동물 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있는 습지에 끼쳐지는 악영향 또한 염려된다.

우리들은 Ramsar COP10 의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람사르 협약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겠다’ 라고 연설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한 직후에 이러한 대규모적인 습지환경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동은 람사르 협약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은 한국습지 NGO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올해에 접어들어 이미 2 회에 걸친 4 대강 개발 사업의 공사 현장의 조사를 했다.

2 월 26 일부터 3 월 1 일 의 조사에서는 한강, 낙동강의 상류유역, 금강의 12 개 장소를 방문, 7 월 9 일부터 11 일의 조사에서는 낙동강의 상류와 중류에서 하구 지역에 걸친 10 개 장소를 방문하였다. 우리들이 조사를 통해 본 것은 강을 막고 있는 거대한 댐이 건설되어 하반림이 뿌리 채 뽑혀나가 배후지에는 팽대한 준설토사가 높게 쌓여있는 광경이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인 치수, 이수에 대해서 전문 연구자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 사업의 유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파괴의 현장을 목전에 두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이와 함께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만 하천환경이 일본의 하천환경과 비교하여도 대단히 훌륭하였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파괴로 인해 잃어가고 있는 자연환경을 부디 보전 하여, 이미 파괴되어 버리고 만 부분에 대해서도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람사르 협약의 입장이다.

환경문제에 국경은 없다고 말해지고 있다만, 한국의 4 대강의 환경은 아시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7 월 22 일부터 한국환경운동연합 (K F E M) 의 멤버들이 남한강의 이포포과 낙동강의 하만포의 게이트의 위에서 정부에게 공사의 중단과 대안정책을 검토하는 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부측의 환경영향평가나 합의형성 과정이 불충분 하였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이해하여 그들의 요구를 듣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 해 10 월 일본의 나고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제 10 회 협약국회의(CBD-COP10)가 열린다. 한국의 4 대강개발사업은 생물종 · 유전자 · 생태계의 다양성 보존을 내세우고 있는 생물 다양성협약에 의거해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한국정부가 현 상황과 같이 환경보호단체와 수많은 주민들로부터의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하에 CBD-COP10 에 참가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비판을 면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지금 상황을 방관하는 일 없이 냉정한 판단 하에 4 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보호단체와 지역주민과의 대담을 통한 사업의 진행방식에 따른 근본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

韓国四大河川事業の工事中断を求める緊急声明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

代表理事 柏木 実
同 呉地 正行
同 花輪 伸一
同 堀 良一

私たち、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は、韓国、イ・ミョンバク政権に対して、四大河川開発事業の工事を直ちに中断し、環境保護団体や地域住民との対話の中で、事業のあり方を根本的に見直すことを要請します。

私たちは、長年にわたり、日本の干潟・湿地の保全に取り組んできた草の根のグループのネットワークです。この15年間は、日本と韓国のNGOの相互交流を深めることによって、両国での活動を活発化してきました。

特に、2008年に韓国で行われたラムサール条約第10回締約国会議（Ramsar COP10）は、湿地保全に関わる世界のNGOのネットワークを強化する意味でも重要な機会となりました。

そのRamsar COP10の直後に、韓国政府がすすめている四大河川開発事業は、ハンガン（漢江）、クムガン（錦江）、ナクトンガン（洛東江）、ヨンサンガン（榮山江）の四つの河川に20ヶ所以上のダムと堰を建設し、土砂浚渫の総量は5.7億立方メートルに及ぶなど、極めて大規模なものです。韓国政府は、この事業による生態系へのダメージを否定していますが、四大河川開発事業は、国際的に重要な渡り鳥の渡来地を消滅させ、河川流域の希少な動植物の生息を脅かすものに他なりません。すでにラムサール条約に登録されている条約湿地への悪影響も懸念されています。

私たちは、Ramsar COP10の開会式で、イ・ミョンバク大統領自身が「ラムサール条約の模範的な国家になる」と演説したことを忘れていません。その直後に、このような大規模な湿地環境の破壊を主導する韓国政府の行為は、ラムサール条約への挑戦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私たち、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は、韓国湿地NGOネットワークとの共同で、今年に入ってすでに二回、四大河川開発事業の工事現場を視察しました。

2月26日から3月1日の視察では、ハンガン、ナクトンガンの上流域、クムガンの12ヶ所を訪ね、7月9日から11日の視察では、ナクトンガンの上流、中流から河口部の10ヶ所を訪れました。私たちが見たものは、河川を遮断するように巨大なダムが建設され、河畔林が根こそぎ切り払われ、背後地に、膨大な浚渫土砂がうず高く積み上げられている現実でした。あわせて、事業の目的である治水、利水について、専門の研究者の意見を聞きましたが、この事業の有効性は認められませんでした。

私たちは、このような環境破壊の現場を目の当たりにして、大きな怒りを覚えました。それとともに大変残念に思うことは、失われてしまった河川環境が、日本の河川環境と比べても、はるかに素晴らし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現時点で破壊を免れている自然環境は、ぜひとも保全し、すでに破壊のおよんでいる部分についても、復元を目指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ラムサール条約の立場です。

環境問題に国境はないと言いますが、韓国の四大河川の環境は、アジアの中でも、国際的にも、大きな価値を持つ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その価値を正しく評価していません。

今回、7月22日からは、韓国環境運動連合（KFEM）のメンバーが、南ハンガンのイポ堰と、ナクトンガンのハマム堰のゲートの上で座り込みを始め、政府に対し、工事の中断と、代替策を検討する機関の設置を求めています。

私たちは、彼らがこのような行動に至ったのは、政府側の環境影響調査や合意形成の手続きが不十分であったことに原因があると理解し、彼らの要求は、問題解決のために必要不可欠なものであると考えます。

今年10月には、日本の名古屋で生物多様性条約の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が行われます。韓国の四大河川開発事業は、生物種・遺伝子・生態系の多様性の保全を掲げる生物多様性条約の観点からも重要な問題であり、現在のように、自然保護団体や多くの住民からの反対の声を無視し、工事を続行したまま、韓国政府がCBD-COP10に参加することとなれば、国際的な批判を免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私たちは、韓国政府が、この状況を放置することなく、冷静な判断の下に、四大河川の工事を中断し、環境保護団体や地域住民との対話の中で、事業のあり方を根本的に見直すことを要請します。

以上

韓国四大河川事業の工事中断を求める緊急声明への賛同者一覧
(2010年8月5日現在)

・個人賛同者 36名 (五十音順)

相澤友夫	三番瀬のラムサール条約登録を実現する会
足利由紀子	NPO法人水辺に遊ぶ会 理事長
安部真理子	沖縄リーフチェック研究会
市野和夫	愛知大学・元教授
伊藤雄一	三番瀬のラムサール条約登録を実現する会
今関一夫	三番瀬を守る署名ネットワーク
遠藤保男	水源開発問題全国連絡会 共同代表
大久保規子	日本環境会議常任理事
小沢秀造	瀬戸内の環境を守る連絡会
大島弘三	諫早湾しおまねきの会
大塚由洋	
織内 勲	三番瀬を守る署名ネットワーク
岸本紘男	三番瀬のラムサール条約登録を実現する会
後藤富和	弁護士
佐藤総子	自然と文化研究会Theかもめ
嶋田久夫	
嶋津暉之	水源開発問題全国連絡会 共同代表
陣内隆之	諫早干潟緊急救済東京事務所
菅波 完	有明海漁民・市民ネットワーク事務局長、高木仁三郎市民科学基金事務局
高木久仁子	高木仁三郎市民科学基金事務局長
田久保晴孝	三番瀬を守る会、千葉県野鳥の会
竹川未喜男	千葉県三番瀬再生会議委員
立花一晃	三番瀬を守る署名ネットワーク
立花小枝子	市川三番瀬を守る会
寺尾光身	名古屋工業大学名誉教授
中下裕子	弁護士
中村まさ子	江東区議会議員
野村修身	工学博士
福島有伸	枝川朝鮮学校支援都民基金
前田かおる	江東区議会議員
松本 悟	ウエットランドフォーラム代表
村山嘉昭	
矢嶋 悟	エコロジーTV
山本茂雄	アジアの浅瀬と干潟を守る会
渡辺優子	三番瀬のラムサール条約登録を実現する会
Mitchell S. Park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sultant

・団体賛同者 3団体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アサザ基金
日本環境法律家連盟
千葉県野鳥の会

以 上